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과 예배는 무엇일까? 이제 아벨을 통해서 살펴보자. 창세기 4:4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라고 하였다. 주의할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그가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으로 드렸다는 사실이다. 아벨이 치는 전체 양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양 새끼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양들 가운데 처음으로 태어난 첫 새끼들을 드리고, 그것들을 태워 생긴 기름들을 드린 것이다. 한 마리 드리는 것도 아까워 마지못해 드리려고 할텐데 아벨은 기꺼이 다 드린 것이다. 아벨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자발성과 그것을 드리는 기쁨과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중을 염려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기꺼이 풍성히 바칠 수 있겠는가?

또한 첫 새끼들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와 것이니라”(출 13:12)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십일조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신앙고백이다.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레 27:30)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히 11:4)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열납하신 것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믿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며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일관된 삶의 연장으로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다. 가인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또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로운 삶, 그의 믿음의 진실함과 신실함이 입증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가 드린 제물, 예배, 삶을 받으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또한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주시는 영광과 평강을 체험하며,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가! 예배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로마서 12:1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배자가 몸만 와 있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쳐 복종시켜서 제물로 바치듯이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찬 나를 다 죽이고 바치며,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기도과 찬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요 6:63)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다.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드린 것으로 끝내버리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같은 삶,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

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이다. 아벨이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이었기에 그가 드린 제물만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열납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